

2023. 5. 2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학예연구부장	박현욱	724-0138
서울생활사박물관장	정명아	3399-2951
담당자	강성신	3399-2973
누리집	https://museum.seoul.go.kr/sulm/index.do	

서울생활사박물관, 미디어아카이브월 2일부터 운영

- 관람객 누구나 대형화면 이용하여 손끝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 자유롭게 검색
- 기증유물관, 서울생활사사진관, 인기 소장 유물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
- 생활 유물과 디지털 기술 접목... 유물 이미지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 가능

- 서울역사박물관(관장 김용석)의 분관인 서울생활사박물관(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)은 5월 2일 화요일부터 박물관 소장 유물 정보를 검색하고 관람할 수 있는 미디어아카이브월(media archive wall)을 정식으로 운영한다.
- <미디어아카이브월>은 전시되고 있는 유물 외에도 수장고에 보관 중인 방대한 양의 박물관 수집 소장 유물을 디지털화하여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체험형 전시 공간이다.
- 서울생활사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입구에 설치된 <미디어아카이브월>에서 관람객들은 대형 모니터를 터치하여 소장 유물을 자유롭게 검색할

수 있다. 미디어월은 최대 4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, 터치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소장 유물에 대한 상세 설명과 확대 가능한 유물 사진, 관련 소장 유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또한 큐알(QR)코드 스캔을 통해 관심 있는 유물 이미지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, 개인 SNS로 공유할 수 있다.

- 서울생활사박물관 <미디어아카이브월>은 박물관 소장 유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‘소장유물검색’ 뿐만 아니라, ‘기증유물관’, ‘서울생활사진관’, ‘인기소장유물’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.
 - ‘소장유물검색’은 박물관 소장 유물들을 결혼·출산·육아·생업·교육·교통 등 생활사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유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.
 - ‘기증유물관’은 생활사박물관 기증자 26인의 이야기와 기증 유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.
 - ‘서울생활사진관’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서울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.
 - ‘인기소장유물’은 서울생활사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
-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는 미디어아카이브월을 통해 수집되는 관람객 참여 데이터(유물 조회 및 공유 횟수, 좋아요 횟수 등)를 향후 박물관 기획전시·교육·조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.

-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 관장은 “‘미디어아카이브월’이 서울시민의 삶과 향수가 담긴 박물관 소장 생활사 유물 정보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, 관람객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며”, “앞

으로도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디어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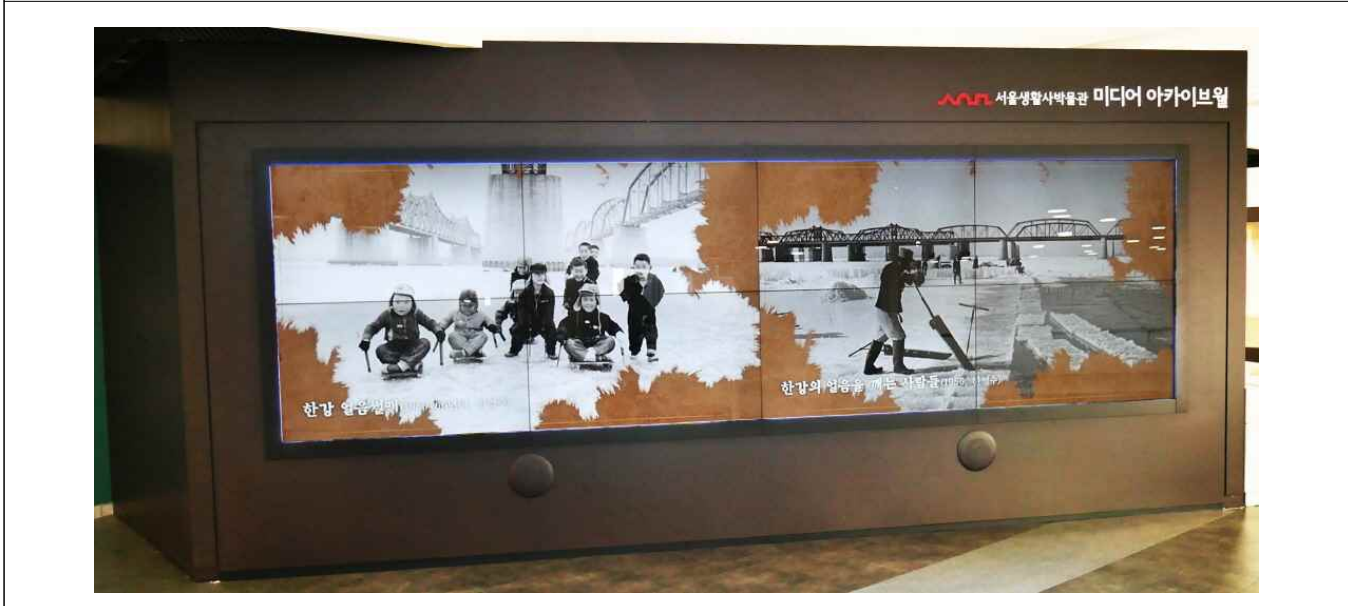
- 서울생활사박물관 ‘미디어아카이브월’에 대한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서울생활사박물관(☎ 02-3399-2973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. 서울생활사박물관 <미디어아카이브월> 관련 사진 1부. 끝.

붙임. 서울생활사박물관 <미디어아카이브월> 관련 사진



미디어아카이브월 소장유물 검색 체험



옛 서울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한 대기 영상



포토 모자이크를 활용한 박물관 전경 사진



QR코드 스캔을 통한 유물 이미지 공유



각 콘텐츠별 검색 화면